DBpia

수로부인설화에 나타난 叛龍鎭撫의 해석

저자
(Authors)

조태영

출처
(Source)

한신인문학연구 1, 2000.12, 223-242 (20 pages)
Hanshin Journal of Humanities 1, 2000.12, 223-242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신대학교 출판부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66124

APA Style

조태영 (2000). 수로부인설화에 나타난 叛龍鎭撫의 해석. 한신인문학연구, 1, 223-2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30 15:1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수로부인설화에 나타난 叛龍鎭撫의 해석

조 태 영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필자는『三國遺事』「紀異」를 神異를 통하여 역사의 추진력을 인식하려고 한 일연의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보고,「紀異」의 설화들에 대한 신화·역사 상호 해석적 작업의 일단으로 수로부인설화에 대한 고찰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수로부인설화에 대한 첫 번째 고찰[1]을 통해『三國遺事』「紀異」〈水路夫人〉의 純貞公과『三國史記』「新羅本紀」景德王 元年 기사의 이찬 金順貞은 동일인이라는 것과 경덕왕비 삼모부인은 수로부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2]. 수로부인의 역사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로부인설화를 분석한 결과 이 설화는 단순히 수로라는 미녀에 관계된 신괴담에 그치지 않고 경덕왕비를 낳은 수로부인의 공훈에 관계된 신이를 설화한 것

1) 졸고,「『三國遺事』水路夫人 說話의 神話的 成層과 歷史的 實在」,『古典文學硏究』16, 韓國古典文學會, 1999.
2) 신라 중대에 왕실에서 족내혼이 성행하였던 사실을 들어 김순정을 "왕족의 일원으로 무열왕계에 속하는 귀족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全德在,「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韓國史論』37, 1997. 6. p.9) 이것이 옳다면 수로부인도 같은 무열왕족계 진골귀족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임이 밝혀졌다. 설화의 표면은 자용 절대한 미녀 수로부인이 신물들에게 잡혀갔다 구출되었다는 〈미녀 피납·구출〉이라는 설화의 보편적 모티프에 의해 진행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왕과 반왕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정치적 대립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로부인이 대립을 해소하는 신성한 공훈을 세우고, 그 징표로 용녀가 탄생하고, 그녀가 왕비가 되고 폐출되는 역사가 수로부인설화 속에 함축되었으며, 설화의 전승층들은 그것을 설화 속에 반영하고 있었다.

수로부인설화에 대한 신화·역사적 해석을 시도한 고찰[3]에서는 산택 신물들의 수로부인 약람이라는 사태의 종교적, 역사적 실상과 수로부인을 구조한 노옹의 무속·역사적 실재, '노옹헌화', '동해용을 조복시킨 무속제의' 등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서 수로부인설화 이해의 중요한 요소들이 밝혀졌지만, 가장 핵심적 요소인 동해용의 무속·역사적 실재와 수로부인의 '반룡 진무'라 일컬을 수 있는 사태의 실상에 대한 고찰은 과제로서 남겨졌었다.

본고에서는 수로부인설화에 대한 선행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설화와 역사의 상호조명이라는 명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천착해 보고자 한다.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반룡이 된 동해용을 진무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가능한 한 역사적 사실을 탐색하여 당시의 정치적 정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본문의 설화 문맥과 상호 조회함으로써 이 설화의 세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 '東海龍'의 무속 · 역사적 실재

수로부인과 순정공, 및 동해안 연도의 신물들의 역사적 실재는 어느 정도 규명되었지만, 동해용과 노옹은 역사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3) 졸고, 「『三國遺事』 水路夫人說話의 신화·역사적 해석」,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200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표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순전히 신화적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들 신화적 형상이 어떤 역사적 실재의 가면, 즉 역사연관적 신화소인지, 아니면 수로부인을 신화화하기 위해 배경 내지 장치로서 삽입된 비역사연관적 신화소인지, 역사적 실재와 무속·신화적 실재가 어떻게 결합된 것인지 명료하게 분간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역사적 컨텍스트와 신화·무속적 컨텍스트를 상호 조응시키면서 탐색해 들어가야 하리라고 본다.

먼저 동해용이 어떤 역사적 연관을 갖는지부터 검토해 보자. 그는 왕권의 대행자인 태수가 조복시킬 수 없는 자이다. 그는 왕에게 맞설 만한 권능을 가졌고, 설화 형성층과 전승층은 그를 신적 존재로 인식한다. 신화적 의장을 벗기면 그는 왕권에 맞서는 권력자이다. 신화 사고에서 용의 정치적 상징의 최상위는 왕이다. 특히 문무왕이 죽어 동해대룡이 된 후 동해용은 신라 호국룡으로서 신라 왕권을 상징하는 정치적 존재가 되었다.

성덕왕의 조부인 문무왕은 죽어서 호국·호법룡이 될 것을 유언했고, 당세 신라인들은 이를 사실로 믿어 문무왕 사후 그를 동해대룡으로 신격화하였다[4]. 그는 특별히 五祖廟에 배향되었을 뿐만 아니라[5] 호국호법대룡으로서 신라 龍神祀典[6]의 최상위에 모셔졌을 것

---

4)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三國遺事』 卷2 「紀異」〈文虎王法敏〉)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三國遺事』「紀異」〈萬波息笛〉)

5)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7年) 그런데 三國史記 〈祭祀志〉에 실린 김부식의 序에 의하면 신라 五祖廟가 설정된 것은 제36대 혜공왕대로 되어 있다.〔按新羅宗廟之制・・・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平百濟高句麗 有大功德 爲世世不毁之宗, 兼親廟二爲五廟.(『三國史記』 卷32 志1 祭祀)〕 이것은 신문왕이 처음 정한 五廟祭祀가 나중에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五廟의 배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제사 대상에 계속 출입이 있다가 혜공왕 때에 이르러 五廟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뒤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고려태조의 〈訓要〉는 龍神에 대한 제사가 신라국가의 중요한 祀典이었음을 알려준다.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이다. 그가 동해대룡이 됨으로써 기존의 龍神祀典 체계는 개편되어야 했을 것이고[7], 그를 위한 大龍神祭가 특별히 거행되었을 것이다. 신라 왕실은 호국대룡을 제사하기 위하여 대용왕당을 세우는 한편, 호법대룡을 위하여 그의 원찰을 세웠을 것이다[8]. 문무왕의 원찰인 감은사에는 호법룡을 모시는 용왕당이 병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9]. 감은사 금당 섬돌 아래에 용혈을 뚫어서 동해대룡의 출입을

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高麗史』 卷2 世家2 太祖26年) 태조는 고대 제천의례로부터 기원한 國祭인 八關會를 계속할 것을 명하면서 그것의 내용을 명시하여 지키게 하였다. 태조가 명시한 八關의 내용은 곧 신라시대에 거행되었던 八關 전통의 내용인데 그것은 天靈과 五嶽名山大川의 龍神에 대한 제사인 것이다. 여기서 五嶽名山에 대하여 제사한다 함은 五嶽名山의 山神 혹은 山龍을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천에 대하여 제사한다 함은 川神 내지 川龍을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八關이 고대제천의례의 계승임은 安啓賢, 「八關會攷」, 『東國史學』4, 1956, p.51 : 崔光植, 「韓國古代의 祭儀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229 참조

7) 신라 國家祀典 체계에서 三山五岳과 名山大川에 대한 제사는 大·中·小祀로 구분하였는데 四海에 대한 제사는 中祀에 속하였다.(『三國史記』 卷32 志1 祭祀) 中祀의 四海와 四瀆에 대한 제사란 주6)에서 본 바와 같은 바다와 강의 용들에 대한 제사를 의미한다. 문무왕이 동해대룡으로 신격화됨으로써 동해용은 四海 龍神 가운데 최고신으로 격상되고 기존의 용신체계에 개편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8) 문무대왕의 원찰인 感恩寺가 세워진 곳의 지명이 龍堂里라고 하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문무왕릉을 삼은 水中巖이 본래 동해용을 제사하던 곳이고, 수중암을 바라보는 곳에 龍堂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무왕이 동해용이 되기를 서원하고 그곳을 자신의 능으로 삼음으로써 동해대룡의 神位에 올랐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감은사는 본디 문무왕이 호국원찰로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신문왕이 이어 완성한 것이다. 문무왕이 감은사를 창사하고 호국호법대룡이 된 것은 동일한 발원의 한 쌍이다. 자신이 동해용이 되기를 발원했으므로 感恩寺를 동해용의 제사처요 龍堂이 있는 자리에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볼 때 감은사의 창사는 불교와 토속용신신앙이 습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9) 感恩寺가 개창되면서 그곳에 전부터 있었던 龍堂이 문무대왕의 後身인 동해대룡의 龍王堂으로 승격되어 감은사 경내의 용왕당으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山地寺刹인 경우에는 산신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반영하는 산신각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하나 沿海寺刹이고 용신신앙과 결합된 감은사의 경우에는 용왕당이 배치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사찰 안에 용왕당이 설치된 예를 羅末 普耀禪師가 개창한 海龍王寺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마련을 하였다는 것을 볼 때[10] 사찰 경내에 호법룡을 위한 용왕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래의 용당을 감은사 안에 들여놓음으로써 토속 용을 불교의 호법룡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재래의 용왕제 또한 동해대룡을 최상위로 하는 위계질서 아래서 거행되도록 재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해대룡을 신주로 하는 대용왕당이 설치되었을 것이고[11], 대용왕무(巫)를 총수로 하는 새로운 무가 권속이 편제되었을 것이다. 대용왕당을 관장하고 용신제를 주관하는 主祭의 직은 용손, 즉 문무왕손계 진골귀족 중에서 맡았을 것이다[12]. 그는 동해대룡의 후손으로서 그 자신 동해용이라 일컬음을 받는 신격적 지위를 가졌을 것이며[13] 이

遺事』 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에 의하면 이 용왕당은 普耀禪師가 南越에서 불경을 구해 돌아올 때 따라온 海龍을 위해 설치하였다.(昔普耀禪師 始求大藏於南越 旋返次 海風忽起 扁舟出沒於波間 師卽言曰 意者神龍欲留經耶 遂呪願乃誠 兼奉龍歸焉 於是風靜波息 旣得還國 遍賞山川 求可以安邀處 至此山 忽見瑞雲起於山上 乃與高第弘慶 經營蓮社 然則像教之東漸實始乎此 漢南管記彭祖 題 寺有龍王堂 頗多靈異 乃當時隨經而來止者也)

10) 寺中記云 文武王欲鎭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 排金堂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11) 아마도 당시 동해안 용신신앙 중심지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성했던 곳의 용왕당을 승격시켜 대용왕당을 삼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울산의 開雲浦라든지, 포항의 九龍浦라든지, 강릉(河西州) 龍鳴嶽 같은 곳을 동해안의 대표적인 龍神信仰地로 들 수 있다. 당시 대용왕당이 어디에 있었을지는 동해안 지역 용신신앙의 전통과 관련하여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12) 신라시대 祭神을 위한 기구로는 典祀署와 祭典, 龍王典이 설치되어 있어 神宮祭祀, 五廟祭祀, 海嶽山川祭 등 국가 제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龍王典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龍王典이 따로 설치되어 大史 2인, 史 2인이 祭務를 관장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신문왕 때로부터 한 동안 이 龍王典이 격상되어 대폭 확대 개편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三國史記』 卷39 志8 職官中) 실무는 하급 관직이 맡았겠지만, 제사를 주재하는 主祭의 지위는 진골귀족이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典祀署는 성덕왕 12년에 설치된 것인데, 이때 용왕전 등 제 제사 기구가 典祀署 아래 통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硏究』, 一潮閣, 1996, p.70)

13) 무당은 그 섬기는 신과 동일시된다. 처용은 울산 지방에서 동해용을 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는 용왕제를 주재하고 동해안 일대의 용왕제를 통섭하게 되었으리라고 본다[14]. 그 결과로 동해안 지역의 민간 용신신앙 전통이 동해대룡을 제사하는 국가제의 아래 포섭되어 들어오게 되고, 용신사전 체계도 재편되어 동해안 지역의 용왕당들이 동해 대용왕당 아래 종속됨에 따라 지역 용왕당의 龍巫들이 대용왕당의 龍巫 아래 子巫로 종속되는 위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5].

사하던 "巫이면서 동시에 巫가 몸주로 모시는 神", 즉 동해용이다.(徐大錫, 「處容歌의 巫歌的 考察」, 『韓國巫歌의 硏究』, 文學思想社, 1980, p.290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硏究』, 一潮閣, 1978, p. 263)

14) 이우성은 동해용을 지방 호족의 설화적 상징으로 보았고, 이런 시각에서 문무왕이 호국대룡이 된 것은 동해 용들을 진무하기 위한 것이고, 신문왕대까지는 동해 용들이 문무왕의 화신인 海中 大龍의 권위 아래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보았다. (李佑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韓國中世社會硏究』, 一潮閣, 1996, pp.173-75) 그러나 동해용으로 지목되는 호족을 용신신앙과의 관련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마는 것은 종교와 정치, 신화와 정치의 혼융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시기는 신화와 종교의 정치적 기능이 매우 역동적인 시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용설화는 오히려 동해안 지역 호족의 지방지배권이 기층신앙인 용신신앙체계와 밀착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족 가계가 巫的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신성권력화함으로써 지역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호족들이 용으로 상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용신신앙과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용신신앙체계 안에서 용왕제를 주재하는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호족 족장들이 용왕제의 主祭가 되지만 巫儀는 그들이 직접 행하지 않고 지역의 降神巫들이 행했을 것이다. 무당이 빙신하여 의례를 거행할 동안 몸주인 용왕과 동일시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儀禮圈안에서 세습적으로 용왕과 동일시되어 신권적 지배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체계의 위계적 구조는 호족 세력들의 지배권상의 위계 구조에 수반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15) 이 논리를 원용한다면 헌강왕대 동해용왕의 아들인 처용은 龍子로 일컬어지던 울산 용왕당 예하의 子位 司祭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東海龍王巫의 일곱 子巫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들 七巫는 울산 용왕당 아래 종속되어 있는 인근 일곱 지역 용왕당의 龍神巫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동해용을 동일하게 神主를 모시기 때문에 都巫인 울산 龍王巫와 부자관계로 결속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처용이 龍神祭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동해안 지방 호족들은 지역 권력자로서 그 지역 용신제를 주재했고, 그럼으로써 신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용신신앙체계 안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은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분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동해안 지역의 호족들은 이러한 무속적 관념 아래 자신들을 동해용으로 자처했고, 또 그것은 통념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신라 시대라면 용신신앙의 강력한 활동기이기 때문에, 이들 호족들이 지역 지배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서만 용을 자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데 신문왕대에 문무왕을 동해대룡으로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왕권강화의 계기로 삼아 동해안 제지역의 용왕당을 동해대용왕당 아래 통섭하는 용신사전체계 재편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문무왕 직계의 진골귀족이 동해대용왕당의 수장이 되고, 그 아래 동해안 제지역 용(호족)들을 편입시킴으로써 왕의 전제적 권력은 크게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16].

동해안 지역의 용신신앙 체계는 왕권체계로 포섭되어 들어옴으로써 신문왕 이후 전제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긴밀하게 정치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 중대 초기에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대용왕 사제직이 왕정보좌의 막중한 위치를 점하는 친왕권적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水路夫人〉의 동해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해안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존재이고, 이러한 동해용의 정치적 위치는 향후 신라 지배세력 내부의 역학관계에 중

司祭이고 동해용왕의 신성가족의 眷屬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金東旭, 『韓國歌謠의 硏究』, 을유문화사, 1984, pp.141-144 참조

16) 이러한 龍神祀典體制가 『三國史記』 〈祭祀志〉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신문왕대에 수립되었을 이 祀典體制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후대에 폐지되어버린 것 같다. 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동해대룡사전이 막대한 권력 체계가 됨으로써 호국룡이 반룡으로 역전하여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성덕왕대 호국룡의 반기를 계기로 대용왕제는 폐지되어 종전의 용왕제로 환원되고, 다만 문무왕 원찰인 감은사에서 행해지던 호국호법 법회만 남게되고 말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동해용에 대한 제사는 다시 지역 용왕당 중심으로 거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체계 속에서 동해용은 본래 왕권의 우익이지만, 지배체제 내부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추이에 따라 반왕권적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왕권과의 사이에 결렬이 생기게 되면 왕권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세력이 될 수 있었다[17].

3. 수로부인의 叛龍鎭撫에 관련된 정치적 정황

성덕왕대는 신라중대 전제왕권이 전성기에 들어서는 시기이지만, 그 전반기는 왕권전제를 반대하는 진골귀족 세력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성덕왕이 왕권전제을 확립하기 위해 집권 진골귀족 세력과 힘겨루기를 하며 정치를 개편해 나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18]. 성덕왕이 정치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취한 조치 가운데 사전체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성덕왕 12년의 전사서 설치이다. 이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기존의 제 제사 기구를 통합하려는 조치였다고 한다면[19], 이것은 이전 용왕사전 체계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왕이 문무대왕을 동해대룡으로 모시는 새로운 용왕사전체계

17) 李佑成은 신라 龍의 형태를 두 유형, 즉 "신라 중앙에 있는 護國護法龍"과 "신라 변경에 있으면서, 우선은 신라의 治化에 복종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반중앙적 반신라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는 크고 작은 龍들"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수로부인설화에 나오는 동해용을 후자로 간주하였다. (李佑成, 앞의 논문, pp.169 -174) 수로부인 설화의 동해용을 東海大龍의 권위에 불복하는 동해용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필자는 수로부인 설화의 사건을 동해대룡과 동일시되는 大龍神祠의 主祭인 문무왕손계 진골귀족이 왕권과 결렬이 생겨 반기를 든 것으로 본다. 또 중앙의 용과 변경의 용을 양분하여 호국룡과 化外의 용으로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동해용은 모두 변경의 용이므로 모두 化外의 용이 되는데 실은 동해대룡은 변경의 용이면서 호국룡이고, 다른 동해용들도 경우에 따라서 호국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룡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18) 金壽泰, 『新羅中代政治社會史』, 一潮閣, 1997. PP.69-83

19) 위의 책, P.7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를 편제하여 전제왕권의 강화를 위한 기구로 활용하였던 것과 반하여 이번에는 성덕왕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용왕사전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까닭은 이 기구가 이 시기에 왕권을 제약하는 반왕권전제의 기구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집권 세력인 반전제적 진골귀족 세력이 실질적으로 동해안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구가 된 통합 용왕사전 체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왕권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덕왕은 이 사전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당연히 반전제적 진골귀족 세력의 강한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연장선에서 수로부인 설화의 동해용 변란 사태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적 역학관계의 추이를 보면, 성덕왕 15년 엄정왕후 폐출, 16년 태자 중경의 죽음, 17년 중시 효정의 퇴진과 사공으로의 교체, 19년 김순원의 딸 소덕왕후의 입궁 등 정치적 격변과 그 가운데 반왕권전제파와 왕권전제파의 세력교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성덕왕 14년부터 19년까지는 각종 재이가 심각하게 잇따라 민심이 불안할 조건이 미만하였다. 성덕왕 14, 15년에는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하서주 용명악의 거사 이효를 불러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고, 16년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17년 10월에는 유성이 앙성으로부터 규성으로 들어가고, 작은 별들이 무리지어 따라가는가 하면 천구성이 간방으로 떨어지는 등 왕권에 불길한 성변이 일어났다[20].

수로부인설화의 동해용 변란 사태는 동해용과 왕권의 결렬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동해용과 왕권과의 결렬은 성덕왕 12년의 전사서의 설치로 인한 동해대왕당의 지위 격하, 15년 반전제왕권파 권력의 중심인 김원태의 딸 엄정왕후 출궁 등의 사태가 잇따르면서 심각해지게 되었을 것이다[21]. 동해용과 왕권과의 결렬이 심해진 가운데 극심한 재이의 연발로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고, 전국에서 민심이 이

20) 『三國史記』 聖德王條 참조
21) 김수태, 앞의 책, pp.63-6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반하여 변란이 잇따르자 동해대룡신사의 동해용이 성덕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본디 호국룡의 지위에 있었으나 성덕왕에게 반기를 들음으로써 반룡이 되었고, 동해안 일대 제 주군의 반민세력들이 그를 추종하였던 것 같다. 수로부인 설화에 기술된 여러 신물들의 작변은 이러한 사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三國史記』에서 "流星自昴入于奎 小星隨之 天狗隕艮方"이라고 한 성덕왕 17년 10월의 성변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다.

문무대왕을 모시는 대용왕당의 사제는 신라왕가 신성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왕권 지지의 핵심이 왕권에 반기를 들었고,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세력(神物)들이 그에게 합세하였다면 성덕왕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덕왕은 강릉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이반한 민심과 합류하여 반기를 든 이 동해용을 진무하기 위하여 김순정, 김수로[22] 부부를 특파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순정 김수로 부부는 동해안 제 주군의 민심을 진무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 반룡을 귀복시킬 임무를 띠고 강릉으로 파견되었던 것 같다[23].

동해안 제 주군의 신물 진무 양상을 볼 때 김순정이 군사적 토벌을 수행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성덕왕은 동해 반민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토벌하지 않고 정치 종교적으로 선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

22) 주2)에서 살폈듯이 순정공과 수로부인은 모두 진골귀족이었을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수로부인을 김수로로 호칭하기도 할 것이다.

23) 필자는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동해안 순행을 동해용의 변란을 진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성덕왕 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졸고, 「『三國遺事』」 水路夫人說話의 神話的 成層과 歷史的 實在」, PP.25-28) 이러한 변란들은 『三國史記』성덕왕 17년의 星變 기사가 그것들을 豫徵한 것이라고 본다면 성덕왕 18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순정공의 파견도 18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神物鎭撫의 종결인 동해용의 鎭撫는 해를 넘겨서 끝났을 수 있고, 수로부인의 권능인 치리적 제의의 공효로 災異의 종식과 민생 歡康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설화의 주지라면 叛龍鎭撫의 시기는 災異가 끝나는 19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여겨진다[24]. 반룡을 군사적으로 토벌하지 않고 정치 종교적으로 해결하려 한 이유와 이 임무의 수행에 김순정, 김수로 부부를파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문무왕의 화신인 동해대룡의 신성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반기를 진압하는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동해용을 귀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고, 이를 위하여는 고도한 정치·종교적 선무가 필요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반룡의 선무에 있어서 수로부인의 역할이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이 반기가 용신신앙을 끼고 민심을 동원하는 형태를 띤 것이어서 단순히 정치·군사적 방법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용신신앙이라는 신앙적 요소에 대응할 신성 권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시기에 중앙 권력층 내부에서 성덕왕을 옹립하고 집권하였던 반왕권전제파 진골 귀족 세력이 아직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25], 성덕왕의 왕

24) 동해용의 반기가 군사적 토벌로까지 가지 않고 순정공과 수로부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실록에 반란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25) 성덕왕은 12년 典祀署 설치, 15년 엄정왕후 출궁 등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였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바로 기존 집권세력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권력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을 것이다. 반전제왕권파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金孝貞이 성덕왕 17년에 中侍職에서 물러나지만(金壽泰, 앞의 책, P.79), 그와 형제 내지 가까운 친족인 것으로 보이는 伊湌 金順貞은 그가 죽은 성덕왕 24년(725년)까지 上宰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全德在, 앞의 논문, P.24) 그가 上宰의 지위에 오른 것은 성덕왕18-19년에 그가 동해안 지경 신물들 및 동해용을 진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거의 같은 시기인 성덕왕 19년 3월 성덕왕의 전제왕권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인 金順元의 딸이 왕비로 입궁하여 왕권 강화의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7월에는 思恭이 中侍職에서 물러나는 정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思恭의 퇴진은 金順貞의 반룡 진무에 따른 권력 교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편으로 왕권강화 조치가 취해지는가 하면 한편으로 왕권 전제의 핵심 인물이 퇴진하는 상반된 현상이 교차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가 팽팽한 권력 각축의 시기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덕왕 24년(725년)에 순정공이 죽고, 성덕왕 27년(728년)에 전제왕권파이자 친당·반일파인 思恭이 상대등에 취임하여 집권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덕왕대의 두 귀족세력 정파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권전제가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방법의 사용이 무리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정치적 관련에서 이 사태를 접근한다면 이 사태는 왕권전제에 반대하는 진골귀족 세력 중 일부의 반기로 이해될 수 있다. 성덕왕 12년의 전사서 설치로 동해대룡 祀典의 위상이 격하된 이래 이 조치에 반발하던 동해대용왕당의 主祭는 성덕왕초 이래 집권세력이었던 반전제적 진골귀족 세력이었으므로 그를 토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귀복시키려 했다면[26] 당시 반왕권전제파의 최고 실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김순정의 파견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27]. 성덕왕은 자신을 추대하여 왕위에 앉힌 뒤 왕권전제를 가로막던 반왕권전제파 집권 세력에 대하여 엄정왕후의 폐출을 단행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나 잇단 천재지변으로 동해안 지경 반왕세력들(神物들)이 봉기하고, 이 형세를 타 동해용이 반왕권전제의 기치를 들고 반기함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타도하려고 하였던 기존의 집권 세력과 타협을 단행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집권 세력의 최고 실력자인 이찬 김순정을 파견하여 동해안 신물들과 동해용을 선무하도록 하였고, 반기한 신물들과 동해용을 선무하는 데 김순정, 김수로 부부는 신화적인 공업을 달성하였다.

반왕권전제 세력의 반기를 선무하는 데 김순정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였다는 것이 그를 선발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지만, 한편 반

의 권력투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26) 반룡을 군사로 토벌하지 않고 귀복시켜 포용하였다는 것도 聖德王을 聖德王으로 諡號하게 한 聖德의 면모로 평가되었을 법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과도기인 이 시기에 성덕왕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세력인 반왕권전제파 귀족세력과 왕권전제를 추진하는 왕권전제파 귀족 사이에서 교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 세력을 포용하는 통치술을 발휘하였던 것 같다.

27) 『續日本紀』 卷33 光仁天皇 寶龜 5年 3月 癸卯의 "本國上宰金順貞"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김순정은 신라 권력 서열상 최고위인 上宰의 지위에 있었고, 성덕왕 24년(725년)에 죽었으니 성덕왕 19년 무렵에 그가 그의 정파에서 최고 실력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란의 종교적 성격 때문에 수로부인의 巫的 권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는 것도 김순정이 파견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리라고 본다. 앞에서 살폈듯이 수로부인은 단지 외모에 있어서 '자용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능에 있어서 신물들을 위무·조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탁월한 能巫였고, 그러한 까닭으로 國巫로서 순정공의 동해안 신물 진무에 수행한 것이다.

4. 정치적 정황의 변이와 수로부인 설화의 변성

동해 제주군의 신물들과 동해용 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결정적인 공적을 세운 김순정은 이후 성덕왕대 정치의 정점에 서게 되었던 것 같다[28]. 김순정은 叛龍을 귀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일본 외교에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9]. 동해안 안무 후 김순정은 성덕왕 20년(721년) 무렵부터 성덕왕 24년(725년)까지 上宰로서 집정하다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30] 효성왕 3년(729년) 경에 그의

28) 『續日本記』의 "伊飡金順貞 汝卿安撫彼境 忠事我朝"라는 기록에서 김순정이 신라 경역을 안무한 공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三國遺事』 水路夫人條의 동해안 제지역 민란의 진무이고, 그 가운데서도 동해대용왕당의 반룡의 진무일 것이다. 이러한 공훈이 그가 上宰의 지위에 오르는 것과 관계가 있을 듯하다. 성덕왕 20년에 何瑟羅道의 丁夫를 징발하여 北境에 長城을 쌓은 것이 발해의 위협이 급박한 정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당시 신라로서는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대외적 상황에서 친일본 외교의 적임자이자 동해안 진무에 성공한 金順貞이 上宰에 오르고 대일 교섭을 맡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측에서 보자면 그는 신라 내의 반일본 세력을 누르고 친일본 노선을 확고히 하였으니 "忠事我朝"라 할 수 있다.

29) 續日本紀에 김순정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일본 천황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잃어버렸다"고 특별한 애도를 표명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김순정이 일본과의 화친을 도모한 당대 대일화친파의 대표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1991. p.11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딸 三毛가 태자비가 되고 마침내 경덕왕비가 된다.

김순정의 딸 삼모가 효성왕의 태자 헌영의 비가 되는 정치 형세를 살펴보자. 효성왕은 왕위에 오른 후 바로 박씨 왕비를 맞아들였고, 2년 2월에 唐使가 와서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채 못되어 박씨 왕비를 폐하고 효성왕3년 3월에 김순원의 딸 혜명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효성왕이 박씨 왕비를 맞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김순원의 딸을 왕비로 맞은 것은 성덕왕의 외척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순원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1]. 김순원은 성덕왕의 후비 소덕왕후의 아버지로서 성덕왕 왕권전제의 핵심이었고[32], 김순원 일파는 성덕왕 말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효성왕은 즉위하자 곧 김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 개편을 기도하였던 것 같다. 효성왕이 김씨가 아닌 박씨 왕비를 맞아들인 것은 왕권을 압도하는 외조부 김순원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자 나아가 새로운 왕권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보인다. 성덕왕대의 반전제왕권파 귀족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씨 왕비의 책봉과 김순원파 인물의 배제에 대하여 김순원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로 마침내 효성왕의 권력 재편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으로 보인다. 김순원의 딸을 왕비로 책립시킨 지 두 달 후인 효성왕 3년 5월에 김순원 세력은 효성왕의 동생 헌영을 태자로 세우는데, 이 역시 효성왕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

30) 주27)에서 살핀 것처럼 김순정이 上宰에 올라 집정하기 시작한 때는 성덕왕 20년 무렵이고, "貢調使薩飡金奏勳等奏稱 順貞以去年六月三十日卒"(『續日本紀』 聖武天皇 神龜 3年 7月 戊子)에서 말하는 去年은 성덕왕 24년(725년)이다.

31) 이 시기 박씨 왕비 세력과 김순원 세력이 대립한 정치적 양상에 대하여는 金壽泰, 「新羅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의 政治的 活動」, 『東亞硏究』 3, 1983, pp.222-225 참조

32) 김순원은 그의 두 딸을 성덕왕과 효성왕 부자 2대에 걸쳐서 납비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김순원 세력의 압박에 대하여 효성왕은 저항을 그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성덕왕 15년(716년)에 폐위된 성덕왕의 전비 엄정왕후와 연결된 세력인 김순정의 딸을 태자비로 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김순정의 딸이 태자비가 된 것은 김순정파의 세력 만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성왕의 김순원 권력에 대한 일시적 반발의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34]. 김순원 세력이 왕비 폐립과 태자 책립을 강제하여 왕권을 결정적으로 견제한 데 대하여 효성왕이 이에 맞서 태자비 책립을 단행함으로써 저항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효성왕이 성덕왕 24년에 죽은 김순정의 딸을 태자비로 세운 것은 김순정의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왕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성덕왕을 일시에 위기에 빠뜨린 동해안 지역 세력들의 반란, 특히 동해용의 반기를 진무함으로써 경역을 안무하고 왕권을 위기에서 구한 혁혁한 공업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반전제왕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성덕왕의 공신이다. 그의 딸을 태자비로 책립하는 데 성덕왕대의 왕권파 세력이 반대할 결정적인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35]. 그러나 효성왕은 위태로운 저항을 계속하지 못하였고, 김순원 일파 귀족 세력의 압박을 못 견딘 채 2년 후에 죽고 말았다.

---

33) 엄정왕후는 성덕왕초 반전제왕권파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원태의 딸이다. 김순정과 엄정왕후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는 위의 책, p.80 참조

34) 효성왕이 김순정의 딸을 태자비로 들인 시기는 왕자 헌영을 태자로 책립한 효성왕 3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毛夫人 출궁의 표면적인 이유로 입궁한 지 1년도 채 안되어 無子를 내세운 것으로 보아 三毛를 태자비로 책립한 시기는 출궁 3년여 전, 즉 왕자 헌영이 태자가 된 효성왕 3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고, 효성왕 4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三毛가 태자비가 된 것이 효성왕 3년이라면 이해 2월에 김순원은 왕자 헌영을 태자로 책봉케 하고 3월에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였으며, 효성왕은 이에 대응하여 5월에 김순정의 딸을 태자비로 들인 것이다.

35) 김순원파가 태자비 책립을 완강하게 비난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김순정이 이미 죽은 인물이라는 것에도 있지 않았나 싶다. 후에 경덕왕 즉위 후 왕권파 세력이 왕비 삼모부인을 폐출하고 후비를 들일 때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효성왕 3년에 죽은 金義忠의 딸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왕비 폐출이 특정한 인물을 위한 사사로운 정략이 아니라는 명분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경덕왕이 즉위하자 권력을 더욱 확고히 다진 집권 세력은 곧 삼모부인을 출궁시켰고, 경덕왕 2년 2월에 김의충의 딸 만월을 새 왕비로 맞아들였다.

삼모부인은 호국룡의 소생으로 태자비가 되고, 마침내 왕비가 되어 영화의 절정에 이르렀으나 재위 1년만에 폐위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러한 그녀의 생을 반영하여 그녀의 신화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이 수로부인설화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은가 한다.

반기한 신물들과 동해용을 선무하는 데 김순정, 김수로 부부는 신화적인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왕권의 위기는 해소되었고, 이후로 성덕왕 일대는 십여년간 장구한 태평성세를 구가하게 되었으니 김순정, 김수로 부부의 공업은 막대하다[36]. 특히 김순정의 처 수로[37]의 공업은 원화 즉 국무로서 치리적 신성능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하다. 그녀가 달성한 일들은 나라를 구제한 신성한 성업이며 그녀가 동해용을 귀복시키면서 나은 딸은 신라왕조를 구한 성업의 징표이다. 성업의 징표인 김순정의 딸이 태자비가 되는 것은 신화의 문법으로 볼 때 신성혼례의 조건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효성왕 및 김순정 세력과 맞서고 있었던 김순원 세력이 김순정의 딸을 태자비로 책립하는 것을 묵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반대하였다면 그녀가 반룡의 소생이라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삼모가 태자비가 된 후 이 출생 문제에 대하여 수로부인·순정공 쪽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김순정 세력은 삼모가 태자비가 된 후 기존의 수로부인설화에 삼모의 잉태와 탄

---

36) "伊湌金順貞 汝卿安撫彼境"이라 한 『續日本記』의 기록이 동해안 지경 신물 작변과 동해용의 변란을 진무한 김순정의 공업을 두고 말한 것이라면, 그의 동해안 지역 안무가 당대에 얼마나 혁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가를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37) 이때는 수로부인이 부인의 위호를 받기 전이다.(이에 대하여는 졸고, 「『三國遺事』 水路夫人說話의 神話的 成層과 歷史的 實在」 참조) 따라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부인'이라는 위호를 떼고 '수로'라고만 칭하기도 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생을 신성화하는 신화를 첨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부분이 탈락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잔존 부분에 삼모부인의 잉태과정이 신비화되어 있음은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첨가 부분에서는 동해용이 반룡이 아니라 호국룡으로 바뀐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여겨진다[38].

경덕왕이 즉위하면서 삼모부인을 둘러싼 정쟁이 재연되었을 것이다. 삼모부인이 여러 해가 되도록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39] 경덕왕 즉위와 함께 정치적 반대 세력이 삼모부인의 폐출을 들고 나왔고[40], 후사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집요하였던 경덕왕이 여기에 동조함으로써[41] 김순정 세력이 최종적으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 같다. 반대 세력들은 삼모부인이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폐비론을 일으켰지만, 거기에 덧붙여 다시 삼모부인이 반룡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재론하였을 것이다. 삼모부인의 폐출과 함께 삼모부인에게 입혀졌던 신화적 수식들은 다시 삭제되었고, 수로부인의 공적에 대한 신화적 미화마저 퇴색되어 일연의 시대에는 단지 그녀의 절대 자용에 관한 신화만 남아 전승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38)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텍스트 분석은 졸고, 「『三國遺事』 水路夫人 說話의 神話的 成層과 歷史的 實在」, pp.21-25 참조

39) 『三國遺事』에 의하면 경덕왕은 삼모부인을 왕자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위시켰다.(〈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40) 삼모부인이 폐출당한 것은 단지 無子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김순정 가문의 귀족 세력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기 위한 당시 집권 세력의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全德在, 앞의 논문, P.33)

41) 『三國遺事』에는 경덕왕이 得子에 집념하여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상제의 말에도 불구하고 후사만 잇게 된다면 좋겠다고 하여 後妃 滿月夫人이 딸을 낳을 것을 아들로 바꾸어 혜공왕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5. 마무리

『三國遺事』「紀異」의 수로부인설화를 신화와 역사의 상호 조명이라는 관점으로 검토하고 해석해 보았다. 수로부인이 자용 절대하여 심산대택을 경과할 때마다 신물들에게 약람당하였다는 이야기는 자용 절대한 원화로서 國巫의 직능을 수행하는 수로가 김순정과 함께 동해안 제주군의 민정 진무를 위하여 파견되어 순행한 과정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수로는 동해안 제 지역의 무속신앙체계에 의해 결속된 지역 반민에게 붙들려갔으나 그들을 무속적 권능으로 위무하고 정치적 보상을 내놓음으로써 그들을 진무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동해용은 문무왕이 동해대룡으로 신격화된 뒤 격상된 신라 용신신앙 체계의 총수로서 동해대룡, 즉 문무대왕을 제사하는 대용왕당의 사제요 동해용과 동일시되는 인물이며 문무왕 직계의 왕손일 것으로 보았다. 신라 왕실의 신성 권능의 표상인 그가 심각한 재이의 연발로 민심이 왕권으로부터 이반하는 사태 속에서 용신신앙체계 아래 포섭된 세력을 업고 성덕왕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았다. 성덕왕은 문무왕의 신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수습하기를 원하여 그를 귀복시키고자 하였으며, 김순정 부부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귀복시킬 임무를 띠었던 것으로 보았다.

〈水路夫人〉에 표현된 신화적 내용은 수로가 반룡인 동해용을 진무하는 데서 겪은 위기와 그것의 해결 과정으로 보았다. 수로의 무속적 권능이나 김순정의 정치적 능력으로는 동해용을 진무할 수 없었으므로 수로 일행은 동해변의 靈地에서 그 지역 농민신앙의 주신인 산신의 조력을 청하는 굿을 하였으며, 그것이 수로가 해변 석장에서 晝饍을 행하고 그에 응하여 견우노옹이 나타나 석장에 올라가 꽃을 꺾어 수로에게 바치는 제의적 드라마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견우노옹이 꽃을 꺾어 바친 것은 산신이 수로를 보호하겠다는 징표를 보여준 것이었으며, 동해용이 수로를 약람하고 돌려보내지 않자 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신무인 노옹은 지역민들을 모아 제의적 시위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민중의 제의적 성토를 당하자 동해용이 마침내 귀복하였으며, 이로써 성덕왕대 최대의 위기가 해소되었고 성덕왕은 장구한 치세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막대한 공훈을 세운 김순정은 그로 인하여 이후 사거하기까지 정권의 정상에서 대일 화친 외교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용은 귀복한 후 수로로 더불어 민생 환강을 기축하는 용왕굿을 거행하였을 것이다. 왕과 동해용이 재화합하는 이 제의에서 수로와 동해용의 交驩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하여 수로가 잉태하여 삼모(후의 삼모부인)를 낳았고, 성덕왕대 화합의 징표로 태어난 삼모가 효성왕 3년경 효성왕의 왕권강화책에 이용되어 태자 헌영의 비로 擇入되었으며, 헌영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로부인설화는 처음에 수로부인의 '자용 절대'를 소재로 하여 〈미녀 납치·구출담〉으로 만들어졌는데, 수로부인의 딸이 태자비로 입궁한 후 그녀가 반룡 소생으로 공격당하는 출생상의 문제를 불식하기 위하여 그녀의 탄생을 신성화하는 신화조작이 가해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로의 용궁 체류를 신비하게 묘사한 부가적 서술 부분이 그 흔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경덕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자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삼모부인에 대하여 반대파의 폐출 논의가 격발하였고 嗣位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던 경덕왕이 폐출을 단행함으로써 삼모부인은 폄하되었고, 수로부인설화에서 왕비탄생담이 다시 탈락되었을 것이다.

본고로써 필자가 기도하였던 『三國遺事』「紀異」의 신화·역사 상호해석이라는 작업의 일단인 수로부인설화에 대한 고찰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 사실의 부정확한 이해, 그에 따른 무리한 해석의 감행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의의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 자체의 필요성은 『三國遺事』와 같은 문학(설화)·역사 혼융적 고전을 해석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제적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고, 연구 방법이 미비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

상태라는 것은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말 일이 아닐 것이다. 필자의 작업이 미흡하더라도 이것을 비판적 논의의 자료로 삼아서 연구가 진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역시 작업을 계속해서 불충분한 방법을 보완하고 시각을 확대시켜 나갈 작정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30 15:11(KST)